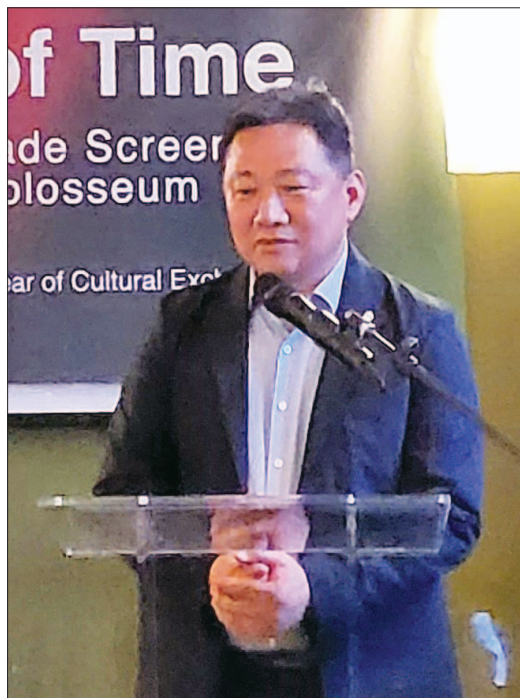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미디어파사드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 상영회를 최근 로마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에서 성황리 끝마쳤다.



이이남, 콜로세움에서 양국 작품 첫 동시 상영



이탈리아 현지에서 인터뷰에 나선 이이남 작가

‘한국·이탈리아 문화교류 해’ 기념…미디어파사드 작품 상영회 성료

‘다시 태어나는 빛’ 가교 기대…몽골·밀라노 MEET 미술관서 전시도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는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이탈리아 현지에서 성황리 진행했다.

3일 이이남스튜디오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 6월 26일 로마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에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관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미디어파사드 작품 상영회를 성황리 끝마쳤다.

이이남 작가는 현지에서 양국의 예술성과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 양국

문화예술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인지도를 확대했다는 평가다.

현지에서 선보인 '다시 태어나는 빛'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 작품을 동시에 상영한 첫 작품이 됐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예술 유산이 하나의 장면 속에서 빛으로 어우러지게 연출된 '다시 태어나는 빛'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건축물인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한국의 '심장생도'와 함께 이탈리아 및 한국의 문화유산이 한 공간에서 조화돼 양국이 지향하는 이상향(Utopia)을 빛으로 덧입혔다. 콜로세움은 고대로

마 문명의 상징으로,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구조를 통해 로마의 건축 기술과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한국의 '심장생도'가 함께 어울리며, 양국의 문화예술 유산이 하나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 두 문화유산이 빛을 통해 조우하는 장면은 '빛'을 통해 과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미래를 비추는 창 역할을 수행했다.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시간의 울림'(Echo of Time)이라는 주제로 한 과거의 예술, 현재의 감각, 미래의 상상력을 연결하는 전시로 양국의 유구한 문명의 미적 감각과 철학을 현대 AI 기술 및 디지털 예술을 통해 서로를 바추고 공명하는 순간을 연출했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이탈리아 전시에 대해 "콜로세움 외벽인 상징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데, 외벽에 창문이 나 있어 색감 구현과 영상 표출에 제약이

많았다. 물리적 제약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미디어아트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보여주자고 했다. 예술은 결국,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작家的 작품이 구현된 콜로세움 미디어파사드는 하루 2만명 이상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로마 엑스포 유치 홍보캠페인(2023), EU 20주년 확장 기념식(2024) 등 이탈리아 국가사업 홍보에 사용되는 매체이다.

이이남 작가는 최근 창기즈칸 국립박물관에서 '2025 몽골·한국 수교 35주년 해'를 맞이해 명예 초대작가로 올란바토르 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오픈식을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8층에서 선보인 작품 소장이 확정됐다. 또 이탈리아 밀라노 MEET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남사당놀이’ 예술로 꽃피운 명인의 삶

국악방송, 7월 ‘이달의 국악인’ 남운룡 명인 선정

국악방송 (사장 원만식)은 국악의 날(6월 5일)을 기념하는 연중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의 7월 주인공으로 남사당놀이 예능보유자 고 남운룡 명인(1907~1978)을 선정했다.

남운룡 명인은 출타기, 버나, 살판, 땃배기, 인형극, 농악에 이르기까지 ‘남사당 여섯 마당’을 전승한 예인이다. 인형극에서는 ‘대잡이’로 활약하며 남사당놀음을 무대 위에 다시 올렸다. 1967년 창립한 인형극회 ‘남사당’의 첫 공연은 꼭두각시놀음을 살려낸 상징적인 무대였다.

7월 방송에는 그의 아들이자 남사당놀이의



전승교육사인 남기문 명인과 다섯 살 때 남운룡 명인의 어깨 위에서 세미로 데뷔한 사물놀이 창시자 김택수 명인이 출연해 기억 속의 남운룡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남기문 명인은 “아버지는 추운 마룻바닥에서도 자식한테만 이불을 덮여줄 만큼 따뜻한 분이셨고 연습할 땐 누구보다 철저하셨다”면서 “지팡이를 잡고 촬영장에 따라와서 말없이 지켜보시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하다”고 회상했다.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는 국악방송 FM(수도권 99.1MHz 등 전국 방송)에서 매일 오전 8시 48분과 오후 7시 24분 두 차례 방송되며, ‘당터콩 플레이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ldl94@gwangnam.co.kr

‘대금과 판소리’ 깊은 숨결과 울림의 미학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제13회 토요상설공연’ 내일 서석당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토요상설공연’ 13회차 무대를 5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선보인다.

첫 무대는 신선민 대금 연주자의 ‘서용석류 대금 산조’ 연주로 시작된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긴 호흡과 세밀한 운지 변화, 텅잉(Tonguing)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음색 구사 등 고난도의 연주 기법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은 남도 음악의 정서와 대금 음악의 섬세함, 전통 음악의 예술적 깊이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대금 연주자 신선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의 이수자로, (사)내뽕소리민족예술단 단장이자 창작국악그룹 그루 멤버로 활동하며 전통과 창작을 잇는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두 번째 무대는 공현지 소리꾼의 ‘강산제 심청가’ 중 일부 대목이다. 공현지는 ‘제24회 서편제 보



신선민



공현지

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제27회 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등을 수상했다. ‘강산제 심청가’는 애절한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는 유파다. 이날 선보일 ‘추월만정~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은 다양한 기교와 짙은 소리를 통해 극적인 슬픔과 해학을 동시에 전달한다.

김다경 기자



독자적 영화 세계

‘컬트 영화 거장’

광주극장서 만난다

‘데이비드 린치 회고전’ 30일까지

고전 ‘이레이저 헤드’ 등 8편 상영

‘스트레이트 스토리’ 시네토크도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연출과 초현실주의적 미학으로 독자적 영화 세계를 구축한 거장 데이비드 린치(1946~2025).

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회고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올해 초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으로 많은 영화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을 기억하며 그의 작품 회고전을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감독’, ‘한 시대를 대표한 컬트 영화의 제왕’ 등 수많은 수식어로 불린 데이비드 린치는 1946년 미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한때 화가를 꿈꿨다.

그는 첫 영화인 단편 애니메이션 ‘여섯개의 형상들’을 만들며 화가를 꿈꾸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영상매체에서 발견한다.

첫 장편영화 ‘이레이저 헤드’는 한 남자의 복잡한 다난한 감정을 실험적 영상과 내러티브로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컬트영화의 고전으로 불리며 린치 영화세계의 명확한 출발점이 된다.

린치는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블루벨벳’과 ‘광란의 사랑’,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허망을 독한 시선으로 풀어내 TV 시리즈로 먼저 주목받은 ‘트윈 픽스’ 등을 발표했다. 이후 ‘로스트 하이웨이’와 ‘멜홀랜드 드라이브’ 등으로 영상적 고만을 치열하게 담아내며, 동시대 거장 감독 대열에서 당당히 ‘마스터 피스’로 자리잡았다.

이런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아 레종도노르 훈장과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평생공로상, 아카데미 평생공로상을 받은 그는 올해 초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린치의 데뷔작부터 근작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술한 마니아를 열광케 하며 린치의 작품 세계 시대를 알린 컬트영화의 고전 ‘이레이저 헤드’(1977)와 실존했던 존 매릭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남다른 외양 안에 깃든 고귀한 영혼을 그려낸 ‘엘리펀트 맨’(1980), 컬트 영화감독으로서 데이비드 린치의 명성을 되찾은 동시에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작품 ‘블루 벨벳’(1986) 그리고 ‘제43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안겨준 ‘광란의 사랑’(1990)을 상영한다.

린치에게 인기와 명성을 안겨준 TV 시리즈 ‘트



‘블루 벨벳’ 스틸컷

윈 픽스’의 프리퀀에 해당하는 ‘트윈 픽스’(1992), 린치의 작품 중 꿈의 풍경이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는 작품으로, 마블린 맨스, 데이비드 보위 등 유명 뮤지션이 대거 참여한 O.S.T가 함께 각광을 받은 ‘로스트 하이웨이’(1997), 잔디깎이 기계를 타고 형을 만나기 위해 여정을 떠난 앨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로드무비 ‘스트레이트 스토리’(1999)도 선보인다.

또 현실과 환상이 피바우스의 피쳐런 연결된 린치의 세계관이 잘 드러난 영화로, BBC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 카이에 뒤 시네마가 뽑은 ‘2000년대 베스트 1위’로 선정된 ‘멜홀랜드 드라이브’(2001)까지 8편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5일은 김영구 영화평론가의 ‘스트레이트 스토리’ 시네토크가 마련돼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상영 정보는 광주극장 네이버카페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9000원, 실버 7000원.

김다경 기자 alsqldl94@gwangnam.co.kr